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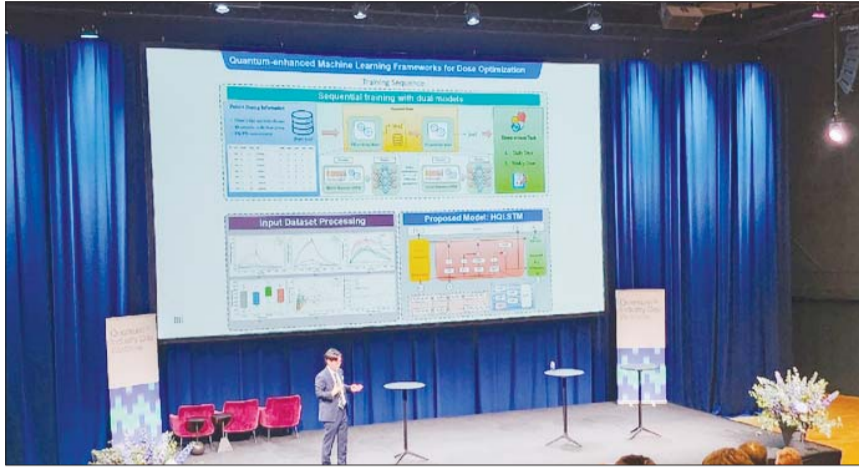
# 부산대, 유럽서 양자·AI 기술 우수성 알려... 국제협력 확대

Team PNU, 경진대회 최고 성적 유럽 연구진과 공동연구 기회 얻어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와 협력 성과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황원주 교수 연구팀 'Team PNU'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 양자기술 경진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며 부산의 연구 역량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 부산시가 구축해 온 국제 협력 체계가 지역 연구진의 해외 진출과 연구 성과 창출로 연결되면서 향후 글로벌 공동 연구 확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황원주 교수 연구팀인 'Team PNU'가 지난 5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글로벌 퀀텀 이노베이션 챌린지(Quantum Innovation Challenge)'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등이 주관한 국제 경진대회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부산대 연구팀의 글로벌 퀀텀 이노베이션 챌린지 발표 모습. /부산시

마련됐다.

Team PNU는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서 환자별 최적 약물 투여량을 예측하는 양자 AI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다. 연구팀은 본선 심사를 거쳐 세계 상위 5개 팀에 이름을 올렸고 유럽 최대 규모 양자 분야 학술행사인 '유럽 양자 컨퍼런스(EQTC 2025)'에 초청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미국 UCLA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세계 주요 대학 연구진과 경쟁한 끝에 연구 완성도와 실제 활용 가

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성과로 Team PNU는 글로벌 제약기업 및 유럽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기회를 확보했으며 슈퍼컴퓨터 인프라 사용권도 얻게 됐다.

이번 결과는 부산시가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re Denmark)와 추진해 온 국제 협력의 성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덴마크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프로그램(GINP)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퀀텀코리아

행사에서 덴마크 외교부 퀀텀 사절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교류 범위를 양자 기술 분야로 넓혔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경진대회 개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지역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다. 지역 연구진이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점도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와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가 함께 구축한 글로벌 협력 기반 위에서 지역 연구진이 세계 최고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와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양자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연구자들의 글로벌 연구 참여 기회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구미시

####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인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총 11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최초 선정 시 55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와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55만원을 지원한다. /구미(경북)=김진근 기자

### 여수시

#### 주요 섬 솜품 영상 공모전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지역 섬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40초로 즐기는 여수' 솜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화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여수 주요 섬 12곳인 금오도, 개도, 안도, 연도, 낭도, 사도, 하화도, 여지도, 조발도, 거문도, 초도, 손죽도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40초 이내의 세로형 솜품 콘텐츠를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광안리 어방축제 할인행사

부산 수영구가 제24회 광안리 어방축제 기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수영구는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광안리 어방축제와 연계해 지역 내 139개 업소가 참여하는 가격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할인 행사에는 골목형 상점가와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일반업소 133개소와 민락회촌 6개소가 참여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영천시

#### 내달까지 관광 굿즈 공모전

영천시는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관광 상품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26 관광 굿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굿즈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정체성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용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대상은 대구와 경북에 소재한 개인 또는 사업자다. 공모 기간 내 완성된 제품과 관련 서류를 영천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 전남도, 출산율 1.30명 '전국 1위'

데이터처 '3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출생아수 2569명... 전년비 341명↑ 출생기본소득·난임부부 지원 확대

전라남도가 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동시에 이끌며 저출산 대응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인구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3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명 증가했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소득을 통해 도내 출생 아동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다인 7개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소득 기준 없이 제공한다.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했다. 가임력 검사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보존사업과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전남아이톡을 운영해 임신·출산·양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문경새재 누적 방문객 153명 돌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축제 영화

문경새재도립공원이 영화 흥행과 축제 효과에 힘입어 관광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경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로 이어 지난 5월 열린 '2026 문경새재사발축제'가 성황을 이루면서 5월 말 기준 문경새재 누적 방문객이 15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여 명보다 29.3% 증가한 수치다. 문경새재는 지난 4월 말 이미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영화 주요 촬영지인 오픈세트장 '뫼천골'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문경새재사발축제 기간에도 28만여 명이 방문하



2026 문경새재사발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제장을 둘러보고 있다.

며 관광 열기를 이어갔다.

문경시는 촬영지 시설 정비와 포토존 조성, 주차장 무료 개방, 전동차 운영 등 관광객 편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영화와 축제가 관광객 증가를 이끌며 5월 말 153만명 돌파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체험형 관광 서비스를 강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참여 사업장 모집

정규고용 시 최대 24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20기 드림터(사업장)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 사업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실무 능력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그린산업단지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참여 사업장은 단순 업무 지원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관련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드림터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 기간 참여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채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청년을 1년 이상 정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40만원의 채용 연계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직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사전에 발굴·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참여 사업장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지역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 경북도, 'K-과학자' 사업 성과 본격화

공모 선정·과학강연 확대

경북도가 추진하는 'K-과학자' 사업이 공모사업 지원과 정책 지원, 과학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원자력, 의료,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 석학 9명을 K-과학자로 위촉하고 기업 기술지원과 정책 지원, 국책사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K-과학자기도와드립니다' 사업을 통해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대학, 기업과의 과학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칠곡군 어린이 과학체

험공간 공모사업 선정이 꼽힌다. 정용환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칠곡군은 국비 10억원과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

과학강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무원 특강과 청소년 교육 등 2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4월 포항 동성고에서 열린 '뇌수술의 역사와 발전' 강연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인공지능, 첨단소재, 생명과학, 농업, 산림 등 분야의 K-과학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주거시설과 공동활용시설을 갖춘 K-과학자마을도 준공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